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욥이 고난당한 이유** 성경: **욥기 6장 1-14절**

Tag:

- 1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 2 나의 괴로움을 달아 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 3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운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 4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히매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 5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 6 싱거운 것이 조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 7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 8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 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라
- 9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 버리실 것이라
- 10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 11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찌 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 12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늦쇠겠느냐

13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나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14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욥6:1-14)

욥기는 첫장과 마지막 장에 대해서만 잘 알려져 있다.

불의의 사고로 전 자식들과 전 재산을 한꺼번에 잃어버린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음으로 결국 갑절의 복을 받아 천수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는 것이 욥기의 줄거리이다.(140년=70+70, LXX=240년=70+170)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는 하나님과 사탄과의 내기의 결과였다. 결국에는 하나님과 욥의 승리로 끝나게 되지만, 욥기에서 주장하는 주요 내용은 두 가지이다.

욥기에서는 이 두 가지 주제가 마치 새끼줄처럼 꼬이면서 진행된다.

1. 하나님의 보편적인 의-심는대로 거두는 고난 (계란의 흰자)
2. 하나님의 구원의 의-고난을 초월하는(보편적인 의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의(계란의 노른자)

1. 보편적인 인간의 의-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 (욥의 세 친구들이 주장하는 의-그들은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경건한 자는 복을 받는다.

-불의한 자는 고난을 받는다.

-하나님은 심판자시며, 그분의 판단은 의로우시며 그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이시다.

-결코 형사법적으로 10년 형 감인데 15년 받았으니 하나님의 의 때문에 고난 받았다고 말해서는 안된다.

-결코 정치적 이유로 형벌을 받는데 억울하다고 말해서도 안된다. 역사적으로 보복이 두려워 정치적 보복을 미리 하는 것.(정치란 정치

적 생명을 내 놓고 하는 것. 옛날에는 실정하면 바로 죽임을 당함)

-혹시 그가 그 죄를 뉘우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어 용서하시거나, 그 심판을 감하시거나, 면제 하신다.

-욥은 이런 저주를 받을만한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고난을 받았다.(물론 그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없는 신적인 존재로서 죄인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다.)

-그는 놀랍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충분히 원망할 만한 일을 당했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느니 차라리 죽겠다고 했다.

-시험을 무사히 통과한 욥은 그 억울함에 대한 보상으로 갑절의 복을 받았다.

2. 하나님의 구원의 의-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대속의 의.(물론 이 의는 신약성경에서 완전히 계시된 것이고, 구약에는 드문드문 전체적으로가 아닌 파편적으로 계시됨)

(특징:까닭없는 고난, 대신 값을 지불하는 고난, 죄가 없는 자의 고난, 율법주의자들의 비난으로 그 영혼이 시달리는 고난)

-하나님께서 기꺼이 사탄의 도전을 받아들이신 이유는 욥의 경건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의를 계시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욥의 고난은 보편적인 고난이 아닌, 구원의 의를 계시하기 위한 고난이었다. 그래서 이토록 엄청난 고난을 받을만한 죄는 없는 욥이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자녀를 잃었다. 이것이 가장 큰 고난으로 하나님도 독생자 예수님을 잃으셨다.(아브라함도 까닭 없이 이삭을 잃을 뻔 함)

-그는 모든 재산을 잃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신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 욥의 깨달음이었다.

-그래서 주신이도 하나님, 다시 빼앗아 가신이도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왔다.

- 그는 건강을 잃었다. 더 잔인한 것은 결코 죽을 수도 없었다.
- 더 잔인하게도 세 명의 경건한 친구들이 와서 함께 올려준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후에 그들은 말로 욱의 영혼을 찌르기 시작했다.
- 죽지도 못한 채 친구들과 말 전쟁을 치루자니 욱은 영혼까지 극심한 고통으로 시달리게 되었다.

2 나의 괴로움을 달아 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3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운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 바다의 모래는 바닷물 때문에 더 무겁다.
- 갈수록 심해지는 자신의 고난과 이제는 친구들의 말 공격 때문에 이전에 했던 꾸밈들은(자신의 생일을 저주한 것) 오히려 경솔한 말에 불과했다는 고백.
- 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더 고난을 가중시킬 수 있을까를 연구하시는 분처럼 여겨졌다.

4 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히매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 하나님께서 나에게 화살을 쏘았으며, 내 영혼이 그 화살 끝에 있는 독을 마셨다. 즉 내 영혼까지 맹독의 공격을 받았으니 내 입에서 나온 말이 어찌 온전한 말일 수 있겠는가?
- 욱이 그렇게 한탄하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그렇다.

5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 까닭없이 내가 이처럼 번뇌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님을 나타냄.

6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옘의 세 친구들은 번갈아 가면서 율법주의적인 말을 쏟아내지만, 그런 말들은 현재 옘의 처지와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라는 뜻. (즉 보편적인 의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는 뜻)

-그런 말을 듣고 있는 것 자체가 오히려 영혼에 고통이라는 뜻.

-그러나 구원의 의에 대해서는 당시 아무도 짐작조차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옘의 심정을 이해할 자는 없었다.

-그래서 옘기에 등장하는 논쟁은 계속해서 서로 엇갈리게 된다.

-옘기는 전반적으로 매우 문학적이다.

8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 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라

9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 버리실 것이라

-이제 옘은 마지막 소원이 빨리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끊어 버리시는 것이다. 그만큼 고통이 심함을 의미한다. 이제는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이런 부탁을 들어주실 것인가가 옘의 고민)

10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옘에게 남겨진 소망은 한가지 뿐.

이제 내 영혼까지 독을 먹고 도무지 어떻게 말해야 좋을지에 대한 지혜가 사라진 것이다. 그러니 한시라도 빨리 나의 생명을 거두시라고 갈망하게 된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적이 없기 때문에 죽이셔도 기꺼이 순종하겠다는 뜻.

11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찌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12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늦되겠느냐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기력도 거의 바닥이 났다. 돌이나 늦되처럼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니 빨리 내 생명을 거두는 것이 낫다.

14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친구들을 책망하는 내용이다.

비록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친구이기 때문에 그를 동정해야 마땅하다는 것.

-그런데 친구들은 오히려 하나님 경외하기를 멈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옹졸하고 율법주의적 성향 때문에 오히려 옳을 정죄하느라 바쁘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구원을 위한 고난을 당하게 되는 때가 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복음을 위한 고난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고난이다.

우리의 고난에는 목표 지향적인 의미가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나 오히려 즐거워하고 인내하게 된다.

또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은 남겨진 고난들이다.

이미 핵심적이며 가장 큰 고난은 예수님께서 지셨다.

그런 고난 당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오히려 대우하실 것을 믿으라.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성경:

Tag:

보편적 역사로서의 성경

-성경에는 독특한 역사적 관점(사관)이 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보편적 역사이다. (물론 다른 내용도 많지만)

-특히 우주적 역사를 담고 있다.

-또한 인류 전체의 기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선택된 한 민족, 선택된 한 사람에게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성경의 역사가 다른 역사와 어떻게 다른가?

-우선, 역사는 기록하는 사람에 의해서 사건이 선택된다.

-선택은 중요성에 비추어 골라진다.

-대부분의 역사는 국가사이며, 세계사는 문명의 발전사이다.

-그러나 모든 국사나 문명사는 일련의 패턴이 존재할 뿐,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거나 하지 않는다. 흥망성쇠이며, 인간의 삶 또한 생노병사이다.

-끊임없는 순환의 연속일 뿐이다.

-유럽의 학교에서는 그동안 천년 가까이 아우구스티누스의 ‘하나님의 도성’을 가르쳤고, 17세기에 이르러서는 여기에 천년왕국의 요소가 포함되었다.(다분히 미래지향적)

-그러나 계몽주의로 인해서 이런 사관은 사라졌고, 공산주의 안에 미래지향적 요소가 담겨있긴 하였으나, 소련 붕괴 이후 이런 미래지향적 요소는 유럽 사회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심지어 20세기 말쯤에는 세기말 증상까지 더해져서 대부분의 유럽

사람들은 희망찬 미래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미래의 빛을 끌어들이 오늘 흥청망청 거리느라 정신이 없었고, 환경을 유린하고, 절망, 상실, 자포자기, 냉소주의가 팽배했었다.

*역사의 목적을 알 수 있는가?

-성경에는 보편적 역사에 대한 독특한 비전과, 인간을 역사의 책임 있는 행위자로 보는 독특한 시각이 있다.

-사람에게 장래에 대한 비전이 없다면, 희망차고 책임있는 행동이 나올 수 없다.

-역사에 지향점이 없다면, 나의 행동도 지향점이 없다.

-그렇다면 규범과 가치관도 사라진다.

-역사에는 반전이 있는가?

-우주 이야기의 한복판에 있는 우리에게 반전은 있는가?

-과연 우주에는 결정적인 국면이 있는가?

-이게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는가?

-이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저자가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려 줄 경우이다. (계시.only! 이성은 결코 아니다.)

-현재의 모든 데이터를 모두 모아 귀납적으로 미래를 예측한다 해도 그것은 장담할 수 없다.(이성의 한계)

*성경은 역사의 비밀을 전달하는 통로다

-이 비밀은 선택받은 자에게 위탁되었다.

1. 그 비밀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신앙을 요구한다. 오직 신뢰가 가능한 인격체를 통해서만 전달된다.

2. 그 비밀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역사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전달되었다.

3. 역사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행위를 이해하는 일은 언제나 신앙의 문제이다. 신앙이 없이는 객관적 진실에 접근할 수 없다.

4. 하나님의 역사는 이성적으로 입증하려고 애쓴다고 해석되는게 아니다. 반면에 인간의 역사를 성경 계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가능하다.

-성경 자체가 인간의 역사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있다.

5. 성경의 독특성은 그것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있다.

-성경은 단순한 종교서적 이상이다. (세상에는 기독교적인 종교서적이 너무 많다. 그러나 ‘성경이야기’ 때문에 모든 종교서적과는 다르다.)

-이 이야기의 절정에 그리스도의 탄생, 성육신, 사역, 죽음, 부활이 있다. (이 이야기에 인류역사의 보편적 함의가 있다.)

6. 성경이야기는 우리에게 타당성 구조를 제공해 준다.

-우리가 성경을 읽기 보다는 성경이 우리를 읽는다.

*이런 시각의 여섯가지 의미

1. 이런 식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몸담고 있는 타당성 구조와는 다른 구조 안에서(공동체;교회안에) 사는 것을 의미한다.

2. 그 구조는 본질적으로 이야기 형식을 띠고 있다.

-인물의 성격은 오직 이야기의 형식으로만 제대로 연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나의 이야기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응답될 수 있다.

-‘나의 이야기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나의 이야기가 속한 그 포괄적인 이야기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을 때에만 제대로 응답될 수 있다.

3. 그렇다고 내가 날마다 무엇을 해야할지 결정하는 일에서 면제된다는 뜻은 아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인간의 의사결정을 담은 이야기이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는 자들에게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으로 묘사되어있다.

4. 누군가 나에게 무슨 근거로 세상의 타당성 구조 대신 이 구조에 동참하기로 선택했는가 묻는다면 이렇게 답할 수 있다.

-첫째, 타당성 구조란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성도 사실은 우주의 합리성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한다.

-둘째,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나는 선택 받았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온 세상과 나누라고 이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도록 부르셨다.

5. 이 공동체의 두드러진 특징은 소망에 있다.

-어떤 행동이든 목표를 지향할 때에만 의미를 지니게 된다.

-그리스도는 곧 역사의 의미이다.

-타밀어(인도어)에는 '소망'이라는 단어가 없다.

6. 소망을 품고 행동한다는 것은 확신을 갖고 바라보는 그 무엇이 있다는 뜻이다.

